

2023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 3

ISSUE FOCUS



4050 인생전환 유형의 평생교육

WHO
edition

ISSUE



- > 일과 삶을 바꾸고 싶은데, 좋은 인생전환 사례는 어떠한가?
- > 요즘 사람들의 인생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성공적 인생전환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보다 더 오래 살지만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짧아지고, 더 나은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직업능력의 향상이나 직업전환을 넘어, 인생의 방향까지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 전환을 얘기할 때면 ‘은퇴자, 베이비부머’와 같이 한 세대 전체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40~50년간 살아오며 누적된 개인의 특성이나 궤적이 다르고, 이로 인한 전환의 양상도 다를 텐데, 그들의 인생전환을 하나로 묶어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전환을 더 세밀하게 이해한다면 인생전환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최근 인생전환 경험자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전환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 맞는 평생교육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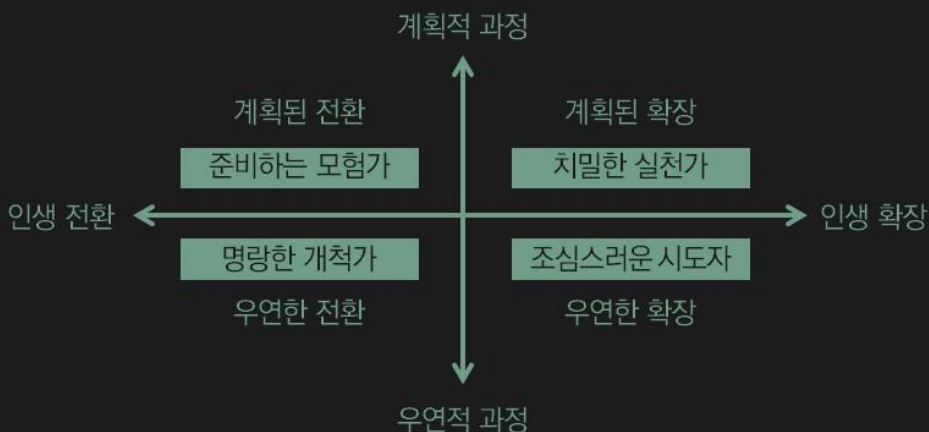
인생전환유형 분석방법

- ✓ 분석 사례: 201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실린 퇴직 후 중장년 사례 중 성공적인 인생전환 경험을 한 83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함(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집 기사 사례 제외 등)
 - ※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신중년의 인생2막 지지와 공감을 위해 2014년 창간된 잡지이며, 현재 45세 이상 남녀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을 표방하고 있음.
- ✓ 분석 방법: ChatGPT를 활용한 인터뷰 요약 후 연구자 3인의 선택코딩 등을 통한 유형 분석



기사에 등장한 사례에서 크게 두 개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하나의 특징은,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전환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들과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아 노력한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이다(계획과 우연). 또 다른 특징은, 퇴직 전에 갖고 있던 전문성을 다른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 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확장과 전환). 그 결과, 경력 전환의 과정은 ① 계획된 전환, ② 계획된 확장, ③ 우연한 확장 ④ 우연한 전환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인생전환의 4가지 유형]



(계획된 전환) 준비하는 모험가 “퇴직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이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기존과는 매우 다른 경력을 계획한 사람들.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고 도전했다는 점에서 ‘모험가’이며, 미래의 목표와 달성 과정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준비하는 모험가’



민병직 님(71세)은 35년 동안 토목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을 훼손했다는 것에 늘 죄책감을 느껴왔고, 은퇴 후에는 환경보전과 복원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퇴직 후 서울시 조경 아카데미 과정에서 기초에서 심화까지 전문 과정을 수료하였고, 서울시민정원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기술사, 종자기술사 등 국가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다. 스스로 정원 관리 및 파종 방법에 대해 연구해 가며 현재는 서울시 민정원사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삶 준비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찾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내적 동기이며, 기존의 삶과는 단절된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삶을 강한 의지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특징임.

신뢰할 수 있는 고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고결한 목적에 어울릴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진지하게 숙고해서 선택할 만한 검증된 프로그램이어야 함.

자기주도적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공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전수 이상의 것이며, 일을 통해 자기 삶을 주도하고 참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고, 감사나 동료 학습자 또한 진정한 (Authentic) 자기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의 구성이 필요함.

(계획된 확장) 치밀한 실천가 “나의 전문성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어요!”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기존의 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삶의 목표를 새로 탐색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연장하고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실천가’

윤현숙 님(51세)은 S은행 VIP실에서 일하다 27년 간의 은행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였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다양한 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의사소통과 금융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 경험을 계기로 퇴직 후에는 수어를 배워서 이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목표를 위해 학원에 다니며 수어와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수어전문 금융 컨설턴트로서 청각과 언어 장애 고객들을 돕고 있다.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자신의 일에 대해 높은 자부심

“내가 가진 특수한 역량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더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가 이들의 관심.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며 숙련된 장인이거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자기 일을 천직처럼 여기고 자부심이 강한 것이 특징임.

인생전환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을 계획적으로 재정렬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생각하고, 세상과 현실을 부지런히 탐색하면서 빈틈을 잘 찾아내는데, 이런 틈새를 발견한 후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을 거기에 맞게 재정렬하여 치밀하게 준비함.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기술 점검 및 재조직화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은 전문성과 기술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에 참여해왔던 영역에서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기술을 점검하고 재조직화하는 것과 관련됨. 자신의 전문성을 더 높은 혹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타 인지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핵심(Core) 기술은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점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맞는 전문적이면서,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토론, 주변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

(우연한 확장) 조심스런 시도자

“새로운 활동, 우연한 만남으로 삶의 보람을 찾았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었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삶의 방향을 구체화한 사람들. 이들이 찾은 일은 기존에 하던 일의 연장이거나 확장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변화의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한발 한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시도자’



박정단 님(50세)은 남편의 세탁소에서 남편에게 옷수선을 배워 세탁소 일을 도우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탁소를 그만두며 스스로 옷수선 가게를 운영했지만 자신의 수선 기술에 대해 늘 자신감이 없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기술교육원에서 옷수선 전문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그동안 몸으로 익혀온 기술에 정식 교육을 통해 이론까지 갖추니, 수선 뿐만 아니라 옷본이나 봉제 원리에 대해 배우고는 과감한 시도까지 가능해 졌다. 최근에는 남성복 기능사와 양복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맞춤형 옷 제작 영역까지 확장하였고, 최신 패션 트렌드까지 파악하며 옷을 제작하고 있다.

상황과 외부 자극으로 변화의 움직임 촉발

“내가 가진 기술이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답을 알아보지는 않는데, 어느 날 주변의 상황에 의해 자기 일을 고민하는 계기가 찾아오는 것이 특징. 즉, 이들의 움직임은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촉발되며, 일단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후에는 여러 시도를 해 보고 그동안 내재하여 있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과정을 밟음.

자신의 일과 삶에 새로운 의미부여

그렇게 시작한 일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에 대한 시각에서는 차이가 큰데, 자기 일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게 다른 유형과의 차별점임.

시작을 위한 동기부여와 작은 시도가 필요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을 다시 정립하거나 다른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계획된 확장’과 유사하지만, 계획된 확장은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이 도드라져 있고 전문성의 수준도 높은 데 비해, ‘우연한 확장’은 시작을 위한 동기, 출발을 위한 예열, 조심스러운 작은 시도가 더 필요함.

격려와 지지의 커뮤니티 중심 평생학습

다른 유형에 비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기에 개인 혼자서 주도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관과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속적 으로 학습과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키워줘야 하기에, 공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함.

(우연한 전환) 명량한 개척가

“새로운 활동, 우연한 만남으로 삶의 보람을 찾았어요.”

퇴직 후의 삶의 방향을 잠정적으로는 설정하지만, 어떤 우연적 사건에 의해 갑자기 경력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새로 찾은 일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드물고 색다르다는 점에서 개척가에 가까우며, 새로운 도전을 낙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미를 찾아 시도했다는 점에서 ‘명량한 개척가’

어떤 계기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 포착

“언젠가 나만의 재밌는 일을 찾겠지” 이런 생각은 꾸준함과 거리가 먼 낙관적인 생각인데, 여유롭다는 이미지를 줌. 그러나 일단 목표를 찾은 후에는 분투하는 것이 특징. 어떤 계기에 의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강한 자신감과 활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시간문제임. 이들의 목표는 평생 물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꿈과 관련되거나, 전에는 몰랐던 재능이나 재미를 발견한 것일 수 있음. 남의 눈에는 이들의 탐색이 돌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꾸준히 접점을 가지며 형성된 생각과 감정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지나며 발현된 모습이고, 이들의 튼튼한 성향은 경력의 전환에서도 엉뚱하고 독특할 수 있기에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가능성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은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중심은 ‘가능성의 탐색’이어야 함. 딱딱하게 구조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시각의 호기심과 개방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좋음. 실제적인 기술 수련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 자극을 제공해야 함. 자신만의 유쾌한 학습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학습 커뮤니티와 교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더 효과적임.

이광식 님(71세)은 출판사를 운영하다 어느 저녁 노을 진 베란다를 지나다 인생을 더 많이 떠돌아보지 못한 미련을 느껴 출판사를 접고 우주를 탐구하겠다는 갈망으로 강화도 퇴모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10년 간 천문학 책을 읽었지만 문과 출신이어서 너무 어려워 중·고등학생용 수학과 과학책을 구입해 기초부터 공부하였고, 그 결과 초보자를 위한 천문학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천문학 콘서트’라는 교양 천문학 책을 스스로 집필하였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그 수익금으로 자기 집에 천문대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고, 돗소니언 반사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인생전환 유형별 평생교육 특징

계획된 전환형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변화의 경로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함.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들이 세운 비전 구현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와 유사 지향을 가진 동료 커뮤니티의 지지와 연대가 중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된 확장형

자신이 쌓아온 전문역량을 보다 확장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형이므로, 원하는 방향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교육프로그램은 목표와 준비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심화 프로그램까지 단계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변화에 개방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큰 편임. 자기중심성도 높아서,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임. 이들은 생애 이전 단계에 비하여 변화의 진폭이 가장 큰 편이라, 다양한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며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전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함. 또한 호기심이 커서, 때로는 지속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함.

우연한 전환형

먼저 나서기보다는 주어지는 계기에 반응하는 편이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는 신중한 타입이므로 시간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교육 활동 기획 시, 참여자들이 동기부여에 이르기 까지 충분한 예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잠재한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함.

우연한 확장형





인생전환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앞서 살펴본 성공적인 인생전환 사례들은 유형별로 평생교육 활동 경향이 달랐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일반화된 인생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 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경험 설계라는 확장적 차원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전환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만의 학습 나침반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인생전환 교육제공은 그만! 인생전환 유형별로 차별화된 경험설계 필요!



개성을 고려한 교육기획

나이 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개인화'임. 각기 다르게 타고난 성정(性情)은 오랜 시간 각기 다르게 쌓인 생애경험에 더하여,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중장년을 위한 교육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적절한 자극과 필요환경 지원

생애전환 유형에서도 자기주도적이며 계획적 전환을 추구하는 그룹도 있지만, 상황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는 그룹도 있음. 각 유형 특성에 맞추어 생애전환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교육제공보다는 배움을 일으키는 경험 설계 중요

학교 모형에 익숙한 교육자들은 자칫 '교육을 제공'하는 일로 협소하게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평생학습은 일방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배움을 일으키는' 일에 가까움. 따라서, 평생교육자의 주된 역할은 좋은 강사를 선별하고 일정을 기획하는 일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설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무형식학습을 촉발하는 경험 설계 필요

경험의 설계에는 학습자들이 접하는 교강사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환경에서 만나는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생산적 자극 경험들 모두 포함함. 평생교육자는 가시적인 형식학습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인 학습환경의 조성, 그리고 학습경험의 구조화를 통해 빈번한 무형식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

인생전환을 위한 학습경험 설계를 위해서는 전환경험을 다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배경 혹은 취향이 다른 참여자와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 운영, 행사 기획 등을 통해서,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경험의 확장과 새로운 자극 교류의 장 마련

참여자들의 경험 폭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과 기회를 교류하는, '생애전환비전 페어' 또는 '실패 박물관' 같은 기획을 고려해 볼만함.

인생전환을 원하는 자,
자신만의 학습 나침반을 가져라!



미래사회 교육비전 변혁적 역량

OECD에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비전을 ‘학습 나침반 2030(Learning Compass2030)*’으로 제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한 바 있음(OECD, 2019).

자신만의 ‘학습 나침반’ 확보 필요

OECD가 이 보고서에서 주로 언급하는 것은 청소년들이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변화하는 미래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성인학습자도 마찬가지임. 중장년 성인들도 앞으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학습 나침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학습 나침반 2030은 우리의 환경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나타냄

생애전환을 위한 학습 나침반 확보 전략

생애전환에 필요한 학습나침반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간 전망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1. 다양한 포트폴리오

은퇴 전에 경험의 씨앗을 폭넓게 뿌려 두는 것이 중요함. 성공적인 생애전환을 한 사례 중에는 평소의 취미나 봉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자신의 생활을 일과 집으로 한정하지 말고, 종교 생활이나 동호회 등과 같은 제3의 영역에서 사회활동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내재한 동기와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성찰과 메타인지 역량은 학습 나침반 확보에 필수 요소임. 자기자신의 특성과 취향, 그리고 활용가능한 자원과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생애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이에 대한 극복과 보완이 가능해짐.

3.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생애전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 앞의 기사에 실린 분들은 대체로 성실과 명량함을 함께 갖고 있는 예가 많았음.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변화를 즐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훨씬 더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높음.

4. 자기주도적 성취 경험

자신이 주도하여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 낸 경험은 중·장년기 생애전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줌. 여기에는 꾸준한 운동이나 식물 기르기, 영어공부 등과 같은 소소한 경험들도 포함됨.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긴 성취경험은 생애전환을 이끌어가는 자신감의 근거를 제공함.



학습 나침반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 경험설계가 중요

사례에 등장하는 퇴직자들은 자기 경력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거나 전환한 사람들이다. Marcia(1992)는 개인의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몇 차례 다시 흔들리고 정립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정체감이 유예되고 성취되는 MAMA사이클(Moratorium-Achievement-Moratorium-Achievement cycles)이 전 생애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Stephen, Fraser., & Marcia, 1992). 은퇴라는 생애사건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여기 대응하는 과정은 순탄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유예와 유실을 동반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성장을 경험한다. 그런 점에서 인생전환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어떤 평생교육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았다.

4가지 유형 모두가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크게는 계획형과 우연형에서 차이가 크다. 계획형(계획된 전환형, 계획된 확장형)은 주도적 설계 경험을 통해 학습결과가 확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우연형(우연한 전환형, 우연한 확장형)은 자신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탐색과정이나 커뮤니티 경험의 장을 제공하며, 해당 활동을 직접 실행해보는 경험제공이 필요하다.

인생전환에 정답은 없다. 우리가 MBTI의 유형분류에 솔깃하게 되는 것은, 무척 단순하지만 자기 내면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전환의 유형화도 마찬가지이다. 네 가지 유형 안에 모든 삶을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실마리를 얻는다면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큰 갈래 길은 여기에 있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수많은 샛길과 예뻐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FOCUS

인생전환이나 인생설계에 대해 누군가가 정답을 주면 좋겠지만
결국 스스로가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자는 학습경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민의 인생전환을 위한 학습경험 설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O, WHAT, HOW, WHY 4가지 카테고리, 평생학습이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이슈포커스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실태조사, 트렌드·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분석 및 작성

이지혜 교수(한림대학교), 안동윤 책임(LG전자 러닝센터), 김혜영 팀장(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OECD(2019). Concept note: Transformative Competencies for 2030.OECD.
- Stephen, J., Fraser, E., & Marcia, J. E. (1992). Moratorium-achievement (Mama) cycles in lifespan identity development: Value orientations and reasoning system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83-300. [https://doi.org/10.1016/0140-1971\(92\)90031-Y](https://doi.org/10.1016/0140-1971(92)90031-Y)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